

지역 균형발전 최우선 ... 낙후·소외지역 '예타' 가중치 부여를

〈예비타당성조사〉

SOC 예산 감축 ... 광주·전남 주요 사업 줄줄이 차질

국정과제 포함된 대통령 공약사업 과감한 투자 필요

정부의 SOC 예산 감축 방침에 따라 다른 지역에 비해 기반 시설이 미비한 광주·전남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일부 광주·전남지역의 주요 사업들마저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벽에 가로 막혀 있다.

주요 사업 대부분이 사업 추진 여부의 잦아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가 SOC 예산마저 줄이면서 '이중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공약사업까지 '예타'가 가로 막아=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최근 발표된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광주~대구 동서 내륙철도(사업비 6조3087억원), 군공항 이전(5조7000억원)과 주요 SOC 사업인 광주~순천 전철전 전철화(2조304억원), 도시철도 2호선(1조9053억원), 국가공원지정(1조5042억원) 등이 예타를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광주~대구 동서 내륙철도, 군공항 이전 등은 예타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다.

또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광주~순천 전철전 전철화 사업도 최근 중간점검 결과 경제성 기준 1을 넘지 못하고 0.74에 머물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인 광주~나주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8770억원)도 경제성은 0.56에 그쳤다.

이 외에도 예비타당성 조사중인 대표적인 도로사업은 제2순환도로 각화~광산 IC 도로 확장(4800억원), 광주순환고속도로 3구간(4800억원) 등이 있다. 특히 제2순환도로 각화~광산IC 도로 확장사업의

경우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방지 민원으로 인해 덮개를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2000억원 정도 증액될 예정이지만,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남도 SOC예산 '짙곰' 반영에 수년 간 공사중 ==영호남 차별과 짙곰예산의 대표적 SOC 사업은 남해안철도 건설이다. 남해안철도는 목포~보성~순천~광양을 거쳐 전주~마산~부산 구간으로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철도다.

사업 기간은 2002~2020년까지로 경상도 구간은 집중 투자로 이미 공사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전라도 구간은 2003년 첫 삽을 뜬 뒤 아직까지 공사 중이며, 공정률은 6월말 현재 24%에 그치고 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지난해말까지 고작 1794억원이 집행됐다. 2020년 사업 완료를 위해서는 매년 3500억원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1999억원만을 반영했다. 이대로라면 3년이상 공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공약 사업인 부산~목포간 해안관광도로(사업비 1조2153억원 중 2000억원) 건설은 아예 배제됐다. 이 사업은 남해안 관광 활성화와 동서 화합 차원의 상징적인 것으로 사업이다. 전남이 보유한 수려한 해안·해양관광 자원 등을 묶어 다양한 광역관광 루트를 만들어 세계적 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기반시설이다. 하지만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다.

■ 광주 현안사업 국고 반영 현황

(단위:억원)

사업명	총 사업비	시 신청액	정부 반영액
경전선 전철화 (광주순천~순천)	20,304.0	48.0	0.0
광주대촌~나주금천 도로확장	796.0	25.0	0.0
상무지구~첨단산단간 도로개설	1,645.0	50.0	5.0
북부순환도로 개설	1,779.0	50.0	5.0

수산식품 수출 단지(사업비 1000억원 중 35억원 건)도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돼 기본-실시설계비가 필요하지만 예산에서 누락됐다.

광양항 낙포부두 재개발 사업(사업비 1869억원 중 67억원 건)은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도 사업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기재부가 전액 삭감했다.

◇SOC 예산, 낙후 지역 우선 배려해야=과거 정부로부터 소외받았던 광주·전남의 SOC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SOC 예산 삭감 정책'을 적용하기보다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부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를 상향조정 해 지역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광주·전남지역이 '유연한 예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고 진행된 사업이 영남에 집중되고 호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역구분이 가능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69건 가운데 40.6%(28건)가 영남지역에서

■ 전남 현안사업 국고 반영 현황

(단위:억원)

사업명	총 사업비	2018년 건의액	정부 반영액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24,731	3,000	154
남해안철도 (목포~보성)건설	13,886	3,500	1,999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14,247	3,000	455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1,833	500	167

진행됐다. 반면 호남은 8건으로 11.6%에 불과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자체에 대한 불만들도 많다. 이 제도는 1999년 최초로 도입됐으며,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및 중기재정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이다. 최초 도입시기부터 지난해까지 654건이 대상이 됐으며, 이 가운데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비율은 절반이 안 되는 47.5%였다.

경제성 분석을 통해 수익 및 편익을 추정해 '1'이 넘지 않으면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경제 기반이 취약하거나 이동 인구가 적은 낙후 지역은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현재 예비타당성 제도의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 20~30%를 더욱 늘려 과거 정부에서 소외받던 지역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선임연구위원은 "낙후지역의 발전 사업들은 타당성 확보율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박근혜·이명박 정부서 차별 문제인 정부에선 찬밥신세”

국민의당 “호남 SOC 예산 심각” 여권 압박

국회가 다음 달 1일부터 100일간 일정으로 정기국회 입법전쟁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후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각종 개혁입법,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두고 여야 간의 치열한 살바싸움이 예상된다.

특히, 정기국회 성적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어서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이 내년 호남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정부 예산을 놓고 여권 압박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SOC 예산은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성격이 큰데다 과거 보수 정권에서 호남이 꾸준히 차별받아 왔다는 점에서 지역 정서에 미치는 폭발력이 크다는 평가다.

당장 박지원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도로, 철도, 교량, 항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호남 입장에서 인산 폭탄보다는 지역경제와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 예산 폭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 노력하겠지만 정부도 호남 예산 폭탄은 아니더라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관심과 관련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낙후된 지역에 대해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주승용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남 최대 현안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목포~보성 간 남해안 철도, 흑산도 공항,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등 4건의 사업에 대해 1조원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72%가 삭감된 2,775억 원 만 반영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과거 보수 정권에서 전남 등 호남은 SOC 분야의 차별로 지역발전엔 큰 타격을 입었는데도 문재인

정기국회 주요 일정

9월 1일	개회식
4~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 4일: 민주당 * 5일: 한국당 * 6일: 국민의당 * 7일: 바른정당
11~14일	대정부질문 * 11일: 정치 * 12일: 외교통일-안보 * 13일: 경제 * 14일: 교육-사회-문화
15~27일	상임위원회 활동
28일	본회의
10월 12~31일	국정감사 실시
11월 1일	2018년 예산 시장연설
12월 1일	본회의(폐선처리)
7~8일	본회의(법안처리)

정부 들어서도 전남은 여전히 찬밥신세”라고 주장했다.

특히,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민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활약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기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SOC 예산 부분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 예산이 지방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점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호남의 경우, 복지 예산 부담으로 현안 및 신규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국민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호남의 현안과 미래를 위해 총력을 펼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활약 여부도 국민의당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은영

‘그림 생각’

(194) 번째

누가 봄 날씨를 번덕스러운 여자 마음 같았는가. 맑은 하늘에 내리는 여우비, 하루에도 몇 차례씩 굵은 장대비 적작 쏟아지다 금방 그치고 마는 올해 여름 날씨야말로 번덕 그 이상이었던 것을, 기상이 번 때문인지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도 올 여름 유난했던 것 같다.

미국 출신의 월터 드 마리아(1935~2013)의 ‘번개 치는 들판’(1971~1977년 작)은 제목 그대로 번개가 바로 작품이다.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번개나 천둥소

‘번쩍’ 자연의 빛 끌어들이는 대지미술의 정수

리는 두려운 것이어서 작품 속 번개의 섬광을 마주하니 대자연의 위엄에 한없이 작아진다.

월터 드 마리아는 폭풍우가 빈번하기로 유명한 장소인 뉴 멕시코 쿼마도의 사막 한 가운데 가로 1.6km, 세로 1km의 면적 위에 7m 높이의 스테인레스 스틸봉 400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였다. 비바람이 불 때마다 금속 기둥은 번개를 모아주고, 번쩍하며 번개가 튀어 오르는 장관은 태초의 풍경 같기도 하여 세상의 종말 같기도 한 초월적 분위기로 가득하다. ‘번개 치는 들판’을 보기 전 번개를 기다리는 동안을 담은 작품인 ‘폭풍 전의 들판’도 스펙터클하다.

사막이나 산악, 해변, 설원 등 광활한 자연 풍경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작업인 대지미술(Land Art)은 1960년 대 후반 영국과 독일, 특히 미국에서 유행했다. 물질로서의 예술을 부정하고 미술시장에서 벗어나 자연의 재인식, 자연환경의 창조적 응용 등을 강조한 대지미술은 여러 행위들을 사진으로 기록해 남겼다.

내바다 사막의 석회기둥 12피트의 간격을 둔 평행선을 1마일(1.6km)에 걸쳐 곧게 그린 ‘1마일의 드로잉’(1968년 작)으로 세계 현대미술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대지미술의 선두 작가로 두각을 나타냈던 월터 드 마리아는 만년에는 대형 설치 작품으로 공간의 웅장함을 표현하기도



월터 드 마리아 작 ‘번개치는 들판’

했다. 일본 나오시마의 지추미술관에 설치한 거대한 규모의 구체조각과 나무로 만들어진 작품들인 ‘시간/영원/시간 없음’(2004년 작)이 대표작으로 영원의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자연의 빛을 끌어들이는 대지미술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광주폴리부장·미술사 박사>

무안출발 일본여행

가을맞이 여행 & 추석 연휴 가족 · 연인과 함께 기타큐슈로 떠나세요!

◆ 출발일 : 2017년 8월 24일(목) ~ 10월 9일(월) ◆

2억원 영업보장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A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7)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 · 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금현

기타큐슈

일본국적 스타플라이어

※선착순 한정 특가

8/24(목) ~ 9/21(목) [매주 월, 목요일 출발]

북큐슈 펜션 실속 특가!!

9/7(목), 9/14(목) [단, 2회]

아마가세 온천 별장 2박 499,000원부터

알차게 떠나는 북큐슈 [실속] 599,000원부터

항공 3박4일

북큐슈 4일 599,000원부터

나가사키 4일 799,000원부터

아마구치 4일 799,000원부터

큐슈·오사카 4일 799,000원부터 [9/18(월) 단, 한번]

선박+항공 2박3일 [단, 2회]

9/12(화) 나가사키 · 군함도 499,000원부터

9/19(화) 북큐슈 · 빗부 · 시모노세키 349,000원부터

◆ 공통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항공TAX, 일본 현지 차량, 전 일정 식사, 관광지 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해외여행자보험

◆ 공통 불포함사항 : 개인 여권 및 경비, 상황에 따라 가이드&기사 경비 20,000원

자유여행 항공권 198,000원부터(TAX포함)

기타큐슈 추석연휴

2017년 제일 긴 추석연휴가 온다!!

9/30(토)~10/9(월) 매일 전세기 운항

호사랑 가족 3대 한정특가!!!

10/1(일), 10/6(금) 단, 2회!

아마가세 고급 온천펜션 숙박 (호텔 2박, 펜션 1박)

선착순 한정 799,000원

· 불포함사항 : 가이드&기사 경비 20,000원 ※최소 4인 이상 예약가능

9/30(토)~10/9(월) [3박4일]

[실속] 북큐슈 898,000원부터

[품격] 북큐슈 1,048,000원부터

[품격] 나가사키 1,098,000원부터

[품격] 아마구치 1,098,000원부터

다낭 전세기 3박5일

(무안출발)

다낭 · 후에 · 호이안

베트남항공(VN)

17, 11/17(금)~18, 5/18(금)

화출발(3박4일) [실속] 699,000원부터

금출발(3박5일) [실속] 799,000원부터

다낭 · 후에 · 호이안 3박5일

티웨이항공(TW)

8/23(수)~10/29(일)

준특급 699,000원부터

특급 799,000원부터

대만 전세기 3박5일

(무안출발)

실속 599,000원부터

품격 699,000원부터

시엠립(캄보디아) 4박5일

(무안출발)

스카이임코르항공

추석 선착순 한정 특가

9/30(토) [단 1회] 1,249,000원부터

※ 날짜와 인원수에 따라 가격이 다르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동다2003-1호
 ◆ 공통조건 :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보통 기종(해외여행) : 1인, 국내항공 5시간반, 관광진흥법기종,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철 / 전 지역 ◆ 상거 요금은 항공 및 항공료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장보험 가입 / 여행중 사고 발생 시 ◆ 예약시 계약서(약관)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경비(입금), 기사/가이드 명세서, 선착순,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황에 따라 다름